

꿈꾸어 본 별이 빛나는 밤

서울 송전 초등학교

2학년 5반 이시은

깜깜한 밤하늘에
화려한 보석을 박아 놓은 듯
아름답게 빛나는 별들

새까만 밤하늘에
쏟아지던 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쓸쓸한 밤하늘엔
흐릿한 달 하나가
외롭게 떠있을 뿐
별은 보이지 않네.

공기가 맑은 날에도
엄마의 가슴을 쿵쿵 뛰게 했던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하던
안동 밤하늘의 별무리
이제 볼 수 가 없다

낮에는 가슴까지 파래지는
새파란 하늘과 양떼구름

밤에는 알콩달콩 귀여운 별무리가
가득했다는 날들을 이야기로 듣는다

이제는 사라져 버린 친구들
맑은 공기와 파란 하늘,
별들이 쏟아지는
밤하늘이 그립다.

나는 별들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며 행복해하는
우리 가족 꿈을 꾸어 본다.
별들로 치장한 아름다운 밤 아래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웃음꽃 피우는
우리 가족 꿈을 꾀다.